

# 교회소식

-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7월 18일 주일은 교회 창립 22주년입니다. 각 선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창립 감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27
- 오늘은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6월 수요 헌신 예배와 창립 주일 준비를 의논하기 바랍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 예배 후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1시 35분, 느껴미야 실).
- TEE 성경공부 수료자 명단입니다. 배움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반: 현석호, 임병숙, 서영애, 박제란, 박영선, 김민경, 한누리  
청지기의 삶: 서창순, 허영순, 김창조, 김자경, 이정인, 민선희, 김선화, 박진영, 김명옥
- 작년 한해 동안 현금하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 성전 이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 전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알파크루시스 컬리지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NZQA 인증 정식 학사  
유학생/영주권자  
문의 021 088 11811

J u n e

## 교회사역일지

6월 13일(주일) 전도 주일  
6월 27일(주일) 성찬 주일  
6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 기도순서

6월 13일 (주일) 현석호 장로  
6월 16 (수) 이옥화 집사  
6월 20일 (주일) 이광희 장로  
6월 23일 (수) 이혜경 집사

## 6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창운, 문지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3호 2021.06.06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5:1-3	인도자
*찬송	10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59장	다함께
대표기도	-----	이정인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22:1-4	인도자
찬양대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하나님의테스트와아브라함의순종	이태한 목사
찬송	304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선교란

##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열방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5월 2일 주일은 8월에 총회가 열리는 망가릴리우 교회에 초대를 받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다락방 관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5월 3일에는 북말라쿨라에서 나라이 목사가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주변에 주술사들이 어렵게 만들어 마음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였고 신구약 성경, 성경공부 자료와 비누 칫솔 치약을 배로 조금 보냈습니다. 바누아투 최북단 밴스 지역 선교사로 4년간 수고를 다한 목사입니다.

5월 6일부터는 초신자를 위한 신앙 기초훈련으로 10주간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여하는 초신자 4명이 2주 차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고 잘 성장해가도록 소망합니다.

5월 14일부터 에라콜지역의 과부(클라리스)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서 성경읽기와 빨랫비누 만들기를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자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주변 마을에도 판매를 해서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계획입니다.

5월 21일에는 전국 전도자 대회가 열렸는데 각 섬에서 온 140여 명이 모여 한 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도하시는데 힘이 되시라고 신약 성경과 쌀(월드 사랑의 나눔 운동 후원)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곳 레스터 담임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새신자 교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5월 25-26일에는 산토섬 탈루아신학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바누아투가 봉쇄되고 여행자들이 없어 각 섬마다 소득이 많이 줄어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교회 두 곳의 지원을 통하여 12명의 신학생들의 밀린 학비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학생들과 바벨론 포로기의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며 2차례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열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신학생들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더욱 많이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하신 영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바누아투에서 기도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코반 간호학교가 설립 목적대로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2. 교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잘 전달되고, 가족이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이애란 권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5:23-25
경	봉	Scripture	디모데전서 5:23-25
설	교	Sermon	몸과 신앙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71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 나눔란

## 2021년 5월 30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믿음은 드러냅니다> 창세기 21:22-34

표현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듯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자 세상 사람들도 이에 반응했습니다.

**1) 영적인 힘으로 드러나는 믿음(22):**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인 비골이 일개 백성인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며 자기와는 다르게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창 39:2-3).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넘어져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2)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23):**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워 평화조약을 제안하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갑의 관계가 된 것은 그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켜보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벧전 3:15). 삶을 통해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 가치로 가장 중심에 두고 살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3) 때를 기다림으로 드러나는 믿음(25):** 삶의 필수 요소인 우물을 빼앗겼어도 아브라함은 책망할 때를 기다린 성숙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물을 되찾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함과 고난을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창 1:5).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는 아름다운 아침이 오기 전의 밤일뿐입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가기에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4) 예배자로 드러나는 믿음(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답게(4:2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누구를 믿느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기둥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록.
2. 성전 이전의 과정에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도록.
3. 예수님의 보혈로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